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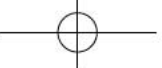


건축자 바울: 공간, 시간, 의례

Paul the Builder: Space, Time, and Ritual in 1 Corinthians

정동현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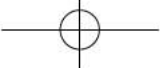
Donghyun Jeong



| 서문 |

1세기 중엽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쓴 한 편지에서 바울은 스스로를 “지혜로운 우두머리 건축자”에 빗대었습니다(고전 3:10). 바울이 자기 호칭으로 자주 사용하는 “사도”나 “그리스도의 노예”에 비하면 이례적인 용어입니다. 저는 이 건축자라는 흔치 않은, 그러나 흥미로운 은유를 출발점으로 삼아 고린도전서 읽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물론 바울은 다양한 표현으로 자기 자신과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했기에, “건축자 바울”은 바울이라는 세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건축 이미지는 바울 자신을 묘사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신자들을 향한 권면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다른 편지에서는 매우 드물게 사용했던 “짓다”, “건축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인 오이코도메인을 고린도전서에서 여섯 차례 사용했습니다(고전 8:1, 10; 10:23; 14:4[두 번], 17). 완성된 건



물, 혹은 건축 과정을 가리키는 명사인 오이코도메 역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나무나 돌을 손에 들고 건물을 쌓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건축의 은유를 통해 표현했던 것입니다. 은유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언어가 작동하는 기본 방식입니다. 건축자 바울이 쌓은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건물 못지 않게 실제적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초를 놓았다고 말하며, 다른 이들이 여러 재료로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수신자들 역시 사랑이나 은사로서 그 건물을 올바르게 세우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이들은 도대체 고린도에서 무엇을 짓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 하나님의 신전(고전 3:16)이라 불리는 교회 공동체일 것입니다.¹

바울이 공동체를 세우고 있었다는 이 포괄적인 진술 안에 들어 있는 세부적 측면을 조금 더 들여다 보는 것이 이 책의 목표입니다. 저는 급진적 구성주의자는 아니지만, 실재가 언어를 통해 구성된다는 개념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저는 본서에서 고린도의 신자들을 향한 바울의 텍스트가 그들의 공간과 시간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1 더 범위를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초기 기독교 전체가 하나의 “기호 언어”이자 “역사의 과정 한가운데에서 건립된 ‘기호론적 건축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게르트 타이센, 『기독교의 탄생: 예수 운동에서 종교로』, 박찬웅, 민경식 옮김(대한기독교서회, 2018), 59. 그러나 저는 1세기 중엽에 고린도의 특정한 신자들을 위해 기록된 바울의 텍스트의 건축 활동을 주로 분석하려 합니다.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해석해서 제시하는 의례가 그 시공간의 구성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보려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고린도전서의 교회론에 관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부러 신학의 범주들이 아니라 다른 범주들, 곧 공간, 시간, 의례라는 안경을 착용하고 고린도전서에 입장합니다.

공간, 시간, 그리고 의례를 각각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자들의 연구는 방대하며, 그러한 이론들을 성경 해석과 연결시키는 학자들의 논의를 덧붙인다면, 참고 문헌 목록은 끝없이 늘어날 것입니다. 본서는 특정한 종류의 사회과학 이론을 날카롭게 가다듬어 성경의 몇몇 본문을 면밀히 분석하기보다는, 공간, 시간, 의례에 관한 상이한 이론들의 통찰을 부분적으로 취사선택하여 고린도전서 전체 해석에 활용했습니다. 저는 방법론적 절충주의(eclecticism)가 꼭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웨인 믹스의 말에 위로를 받습니다. 실은 어떠한 단일한 접근방식도 1세기 텍스트를 완전히 해독하거나, 그 뒤에 존재하는 사회사의 전모를 밝히는 열쇠가 되지는 않습니다. 믹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보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해석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 ...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로 모으는 일은 결국 과학보다 예술에 가깝다.”² 저는 그 다채로운 물감 중 일부를 고린도를 그리기 위한 제 팔레트에, 그 다성

2 웨인 믹스, 『1세기 기독교와 도시 문화: 바울 공동체의 사회 문화 환경』, 박규태 옮김(IVP, 2021), 18-19.



적인 목소리 중 일부를 고린도 로드트립을 위한 제 플레이리스트에 담아 보았습니다.

이 책의 고린도전서 읽기는 저의 특정한 관점이 반영된 읽기입니다. 비록 저의 성경읽기가 제가 지닌 정체성의 총합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텍사스 대도시에 체류하는 외국인 지식 노동자, 불완전한 영어를 쓰는 한국어 화자, 남성, 이성애자, 기혼자, 두 자녀의 아버지, 장로교인, 목사, 신학교 교수와 같은 복합적인 정체성은 제 성경읽기의 관점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칩니다. 고린도전서를 읽고 바울을 이해하려 하면서, 저는 흐릿한 거울에 비친 것과 같은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³ 그러나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성경읽기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읽기가 계속되어야 함을, 즉 성경읽기가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⁴ 우리의 해석은 늘 잠정적이며, 성경읽기

3 Shirley C. Guthrie, *Christian Doctrine*, 50th Anniversary Edition (Louisville: WJK, 2018), 11에서 적실하게 지적하듯,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그리고 자신이 이미 가진 신념에 부합하는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스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열한 이들은 흔히 성경에서 비열한 하나님을 발견하며, 피상적인 이들은 흔히 성경에서 피상적인 하나님을 발견한다. 편안한 삶을 사는 힘 있는 이들은 흔히 성경이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보수주의를 지지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가난하고 착취당한 이들은 흔히 성경이 사회적, 정치적 개혁 혹은 혁명을 지지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4 저는 개혁주의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사람의 장로교인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주의 전통은 우리의 제한적인 복음 이해, 하나님 이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것을 요구합니다(Guthrie, *Christian Doctrine*, xv와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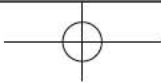


의 참 열매는 답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습니다. 이 책 역시 그렇게 잠정적인 해석의 여정에서 남긴 스케치입니다. 기독교인 독자들은 고린도전서를 읽으며 바울을 통해, 바울과 함께, 그리고 바울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본서가 특정한 순간의 한 개인의 읽기를 담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모든 성경읽기 과정은 독방의 개인에게 주어져 있지 않고 해석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저는 다른 이들과 대화하며 해석합니다. 먼저, 학계의 다른 학자들이 제게는 해석 파트너들입니다. 또한 교회의 성도와 학교의 학생들 역시 저에게 해석의 공동체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의레이기도 합니다. 저는 2019년에 애틀랜타중앙교회에서 한 학기 과정으로 교인들과 고린도전서 성경공부를 진행했습니다. 또, 2020년 봄학기(에모리대학교)와 2023년 가을학기(오스틴 장로교신학교)에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고린도전서 주석을 가르쳤습니다. 공동체와의 해석의 의례를 통하여 저는 고린도전서의 공간과 시간 안에 더 머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서 글을 읽거나 쓰는 일 외에는 대체로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 학우들,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 가는 곳마다 저와 제 가족을

성경해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신학은 역사 속 특정한 시점의 복음 이해나 교리적 진술을 반복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돌보아 준 교회 공동체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학문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끌어 주신 장신대와 예일, 에모리의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신 「도서출판 학영」의 이학영 대표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여름,

정동현